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24. 마드리드 맛집 까사 루초 (Casa Lucio)

우리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걸어가면 약 30분 거리였으나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추위 속에 걷기가 싫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1분만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서 아르구엘레 방향 버스를 타면 된다. 우리는 많이 기다리지 않고 C03 버스에 올라 탈 수 있었다.

마드리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버스 두 대가 아코디언처럼 연결된 이중 버스가 많았다. 우리가 탄 버스도 기다란 2칸 형 버스였다. 따뜻한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긴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아침부터 강행군으로 일정을 소화한 R과 나도 좌석에 기대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빨리 호텔로 돌아가 잠시 쉬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지.

저녁 식사는 마드리드 유명 맛집 '까사 루초'에서 할 예정이다. 까사 루초는 1974년에 오픈한 19세기 선술집 스타일 레스토랑이다. 전형적인 스페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소문난 맛집이고 스페인 국왕을 비롯해 정치인, 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등 많은 유명인들이 와서 식사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유명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전통 스페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그리로 정했다. 온라인 예약은 받지 않고 전화로만 가능해서 어젯밤에 호텔 프런트에 부탁해 오늘 8시 30분으로 예약해 두었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일곱 정거장을 지나 약 20분 만에 호텔 앞 콜론 정류장에 우리를 내려 주었다. 골목길을 돌아 호텔로 들어가는데 내무성을 지키고 있는 총 맨 군인들이 이제는 별로 무섭지 않다. 호텔로 들어갈 무렵에는 날이 완전히 캄캄해졌다.

편안하고 따뜻한 호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폭신한 침대에 쓰러져 누웠다.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도 못 뜰 지경이다. 저녁이고 뭐고 그냥 자 버리고 싶었으나 잠도 겨르고 겨우 간식만 조금 먹은 아이를 굶겨 재울 수는 없다. 나

는 벌써 일어나 세수를 하고 와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R을 깨웠다.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자. 저녁 먹어야지!" R은 쾅한 눈으로 일어나 앉아 대답했다. "엄마, 너무 피곤한데 너무 배고파서 빨리 가서 먹고 싶어!" 느긋하고 천천히 여행하자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피곤하고 배고프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하루 종일 불평 한 마디 하지 않는 착한 딸을 미술관에서 미술관으로 쉴 새 없이 끌고 다닌 것이 너무 미안했다.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다시 호텔을 나섰다. 캄캄하고 춥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알론소 마르티네즈역까지 걸어가 5번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 다섯 정거장을 지나 라 라티나 역에서 내리면 약 4분 거리. 350미터쯤 걸어가면 까사 루초가 나온다. 주소는 C. de la Cava Baja, 35, 28005 Madrid. 환하게 불을 밝힌 조용한 밤거리에는 모터 사이클이 줄지어 서 있었다. 4층 건물에 위치한 레스토랑 까사 루초는 육중한 밤색 나무문과 함께 우리를 맞아 주었다.

까사 루초는 8시 30분에 저녁 식사 영업을 시작한다. 도착하고 보니 우리가 제일 처음 손님이었다. 까만 에이프런을 착용한 나이 지긋한 웨이터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레스토랑 안은 정말 19세기 선술집 분위기가 물씬한 것이 소박하면서도 아주 고풍스러웠다. 벽돌로 쌓은 아치와 붉은 타일 바닥, 흰 테이블보를 덮은 식탁과 나무 의자들은 투박하고 정다웠다. 우리가 첫 손님이라 아무도 없어 마치 레스토랑 전체를 예약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입구 왼쪽에는 기다란 카운터가 있었다. 카운터 뒤쪽 벽에는 와인병들과 유리잔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고 중앙에는 여러가지 이름표를 붙여 놓은 하몽, 즉 돼지 다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한쪽 구석에는 활을 세워 놓은 듯한 모양의 하몽 썬는 기계가 배치되어 있고 웨이터 한 명이 벌써 빨간 하몽을 썰고 있었다. 카운터에는 유리 진열장에 음식이 잔뜩 진열되어 있어서 거기에 앉기만 하면 타파스 바의 모양새가 제대로 갖추어질 것 같았다. 우리 웨이터 아저씨는 앞장 서면서 따라 오라고 하더니 벽돌 아치를 지나 나무 계단을 올라 이 층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메디케어 aga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1500-\$2000/yr) - (지역별로 다름)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29년의 오랜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필요하신 혜택을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하세요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일본식사 재팬!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주문 가능
sukosushi.com

Yelp로 주문 시
\$5 OFF
(\$25불 이상)




T. 562.404.0007
14156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Happy Hours
Mon - Sat
5pm - 7pm

EquitySource

직판매 PROGRAM



저희가 부동산 커미션 없이 10일안에 집을 사드립니다

- 24시간 안에 현찰 구입 가격을 받으시고, 클로징 날짜를 자유롭게 정하세요 (50주 가능)
NO showings, NO open house, NO repairs
- 판매후 1년까지 시세 가격으로 렌트 가능
Sell & Stay: Lease back up to 1 year after sale
-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최선의 매물을 찾아드리고, 저희의 자금으로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리스팅 PROGRAM



저희와 리스팅을 하시면 시세 최고의 가격과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십니다.

- \$100,000 까지 0% 이자 융자 제공 (새집 down payment, 집수리 renovation, 이사 비용, 등등)
- MLS 리스팅 이후 판매가격 최대를 못받으시면 저희가 구입하는 Guarantee Program
Includes: 전문 드론 사진촬영, 3D virtual tour, SNS 광고
- Option: HOMECASH™: 이사를 하세요? Listing 동시에 이사하실 집을 저희의 자금으로 먼저 (All Cash Offer) 확보하세요
Buy before you sell!

DIRECT 949-245-2662

S. California Office: 7035 Orangethorpe Ave Ste E, Buena Park, CA 90621
Las Vegas Office: 5940 S. Rainbow Blvd, Las Vegas, NV 89118